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아연주간뉴스단평 2021-04-05

아나키스트연대

아나키스트연대
아연주간뉴스단평 2021-04-05
2021 년 04 월 05 일

[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
222299059018](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222299059018)

kr.theanarchistlibrary.org

2021 년 04 월 05 일

차례

1. [자본주의와비인간적인유통세계]	3
2. [언제나와같은사기극]	4
3. [훌륭한자본주의적제국주의]	5

박수를 보내자. 포스코와 대한민국은 훌륭한 제국주의 국가의 침범이 자그자체가 되었다. 이제 너무나도 확실하지 않은가? 미얀마던 대한민국이던, 모든 정부 기관과 국가 권력은 자본의 하수인이자 대변인이란 것 말이다. 그리고 그 자체로 자본주의적 제국주의에 복무하고 있다는 것 말이다.

” 한국 기업이 미얀마 군부의 돈을 줄?” 속사정은...” :

https://imnews.imbc.com/news/2021/world/article/6128811_34880.html

1. [자본주의와 비인간적인 유통 세계]

2021년 3월 23일 수에즈 운하에서 발생한 에버기븐 호 좌초 사고에 의해 422척의 유통 선박의 발이 묶여 있었다. 이후 29일에 에버기븐 호는 준설기도움으로 완전 부양에 성공했고 이후 수에즈 운하는 다시 정상적으로 개방되었다. 하지만 에버기븐 호는 이집트에서 떠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에버기븐 호는 이집트 정부의 피해 보상을 위한 인질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자본주의 경제 논리가 이집트 정부의 행동이 잘못 된 것은 전혀 없다. 이집트 정부 입장은 사고의 원인에 강풍과 같은 수에즈 운하 자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선박의 기술적인 결함이나 사람의 실수가 있었다고 해석한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려면 배를 함부로 놔 줄 것이 아니라 잡아두고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자칫 하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과 더 연관이 있는 선주 ‘쇼에이 기센’이나 선박 운용사 ‘에버그린’ 대신 10억 달러 가량의 배상 금액을 책임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잠깐대만 vs. 일본 같은 국가주의적 대결 구도 상상이나 밈질은 그만두고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피해를 간단히, 대신 알아 보기 쉽게 짚고 가자. 우선 앞서 말했듯이 422척의 유통 선박의 발이 묶여 있었다고 했는데 이런 선박 하나에 나뭇가지가 가지만 수천 개의 컨테이너를 적재하고 한 컨테이너에 20톤 넘게 들어간다. 즉, 수에즈 운하에 발이 묶여 있던 수많은 유통 선박은 지구 각 지역의 항구에 다다라서 수많은 공장 과 산업 현장에 어마무시한 양의 각종 자원을 조달해야 했었다. 그 애야 했었는데 그 선박들은 약 일주일, 상황에 따라 이주가 깎게 발이 묶였고 여기서 원재료 등을 조달 받지 못한 수많은 공장 과 산업 현장이 계획대로 생산을 못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 피해는 단순히 그만큼 수익을 못 냈다 정도가 아니라 예정과 다르게 생산에 차질이 생겨서 계약 위반 등으로 배상 금액을 떠맡게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몇몇 기업에서는 파산 및 실직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집트 정부가 요구하는 10억 달러 가량의 배상 금액이 납득이 가긴 할 것이다. 그 많은 배상 금액은 이집트 정부가 형식적으로는 홀로 독차지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에즈 운하에 의존하던 수많은 유통 업체와 유통 사용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묻고 싶다. 선주와 선박 운용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끼친 피해는 자본주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어마무시하게 크다는 것은 사실이다.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과연 모든 사사로 온 것까지 자본주의와 자유 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라가 치가 부여되고, 그래서 단순히 예정대로 생산을 못했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빛의 노예로 만들거나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이거 대한 도박장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는 것이다.

잠시 주관적인 상상을 펼쳐 이야기하자면, 만약 전세계가 필자가 꿈꾸는 대로어나키즘적코뮌으로형성된거대한공동체라면, 위와같은문제가생긴다면어떻게해결할것인가? 하나확실한것이라면적어도유통선박에게서물자를받아생산을해야했던공장관계자들에게어마무시한빚을떠넘기거나실질적인사형을내리지않을것이다. 그와같은코뮌, 혹은코뮌조합을유지하는민중은모두생산실패의원인이그들에게있지않다는것을알고, 자신들도비슷한처지에겨울수도있다는것을알기에그들에게책임을묻기보다는생산실패의결과, 즉일시적빈곤을담담히모두가분담하여수용할것이다. 그리고이와비슷한원리는에버기븐호에의해정체되었던모든유통선박관계자들에게도해당될것이다. 마지막으로에버기븐호의관계자들은직접적으로책임이있기에추후사고방지를위한재훈련및패널티등이있을것이다. 그러나앞서자본주의체제에서부여되는책임감에비하면, 수많은빛의고통과죽음에대한책임에비하면가벼울것이다. 모두가잠시빈곤을분담하게되어불편을겪게된일에대한책임은전자에비하면깊어지기쉬울것이다. 많은이들은이를듣고이상주의적이라고말할것이지만필자는이것이이상주의적이라생각하지않는다. 이것은올바른것이다. 아나코코뮌주의는인류의미래에필수적인것이다.

“수에즈운하정체사태끝” 10 억달러배상, 이제...”
https://www.ytn.co.kr/_ln/0134_202104041043517217

2. [언제나와같은사기극]

4.7 재보선선거가눈앞으로다가와있다. 특히주목받고있는곳은단연서울시장선거일것이다. 반동양당의후보들이제각기각자의서울을외치며투표를독려하고있지만이소위민주적선거라는체제가언제나민중에게몇년에한번몇명의사기꾼중자신을지배할독재자한명을택할권리를줬을뿐인사기극이었듯이이번선거또한다른한편의사기극에불과하다.

부자들의배를불리고자용산에서의참사를불러일으킨오세훈이나경제민주화를내세우며탄력근로제확대를주장했던박영선의이중성등후보개인의추악함을말할수수도있으나중요한점은선거따위는민중의삶을개선시킬수없다는체제본연의문제다.

어느당이얼마의표를받아집권을하던그들은민중을대변할수없다. 그들이민중을소위대변한다는정치행위는결국모두자의에근거한것일뿐이다. 민중은그들에게책임을물수도, 통제할수단도없다. 하물며가장강력한압제의주체인자본은그들조차통제하지못하는대상이며민중의직접권력행사는애초부터막혀있다.

이번재보궐도, 서울시장선거도마찬가지다. 쪽방촌의주민들에게집을줄수도, 농성하며투쟁하고있는노동자들을도울수도없다. 추악한반동양당후보를넘어저부패한권력을탐하는모든이들은민중의대안이될수없다. 민중에의한직접행동만이답일따름이다.

” 사전투표율 20.54% 역대최고치” :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5550>

3. [훌륭한자본주의적제국주의]

MBC 와국가기관을비롯하여수많은자본들이자신들의행위를비호하기위해온갖논리들을갖다붙이고있다. 미얀마항쟁에있어군부에포스코는결코도움을준것이아니라느니, 미얀마에서철수하는것은어렵다느니하는해명을기업은물론이거니와공영방송인 MBC 에서조차펼치고있다. 사실이는어찌보면너무나도당연한수순이다. 국가권력은자본의하수인아니던가. 그들이비호해야할것을비호하는것뿐이다.

그들의자기위로는너무나도어설피고허탈해, 보는우리로하여금실소를금치못하게만든다. 군부에게배당을멈추고있었다던가, 철수를하지는못한다던가하는말은결국 ‘아무튼도우려는의도는아니었지만, 돕고는있는건데, 아무튼도운건아님.’ 이라는말을돌리고또돌려서표현하는것이나다름없기때문이다. 우리는그렇게필사적으로자신들을비호하는미얀마노동자들을착취하는한국기업들에게묻고싶다. 진정으로당신들은미얀마군부를돕지않았나?

그들이그어떤미사여구를붙여군부와외관계성을거부한다한들, 미얀마에서여전히돌아가거나활동하고있는한국기업들은결국미얀마군부의‘목인’혹은‘허가’아래에서움직이고있다. 포스코와한국기업들이미얀마군부를성토했고, 그들과함께일하지않겠다선언한적이라도있던가? 그들은‘기업활동을위해어쩔수없다’라고변명하지만, 우리는안다. 그것이그들의본질이라는것을. 인민의자유를향한투쟁과연대는, 그들에게있어돈이되지않는, 그리고리스크가매우큰일이란것말이다.

이미드러난사실을부정하는것도비웃음만나올뿐이다. 그래서민아웅흘라잉과유착, 이전부터없었나? 예전부터그들과거래하고있던것은다사라지는가? 그래서지금미얀마에서사업안하고있나? 그들의투자와사업이미얀마군부가아니라미얀마인민에게돌아가고있나? 전혀아니지않은가?